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및 목적
비교분석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혜 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및 목적
비교분석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혜 림

인 준 서

이혜림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1차~2009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목적을 비교분석하고 새로 공시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새 교과서 제작 및 수업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음악교과의 목적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살펴본 결과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자아실현’, ‘사회적 기능’의 4가지 목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1차~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교육’으로서의 목적은 1, 2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서 함양을 위한 목적을 제시한 반면 3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전인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본질적 음악적 특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창의성 계발’으로서의 목적은 3차 교육과정부터 언급되었는데,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점차 ‘창조성’에서 ‘창의성’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자아실현’으로서의 목적은 초기에는 음악잠재력 계발의 측면만 강조되었고, 4차 교육과정 부터 ‘심미적 체험’에 관한 목표가 함께 제시되었다.

넷째,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목적은 문화유산 계승과 학생 생활 속에 존재하는 음악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유산 계승의 목적은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3차 교육과정에서만 제시되었다가 통일대비 교육의 명목으로 6차 교육과정부터 다시 제시되었다. 생활 속 음악의 목적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인 1, 2차 교육과정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7차 교육과정부터 교육 내용과 학생 삶의 연계성을 강조함에 따라 다시 제시되었다.

4가지 당위성은 모든 교육과정에 고루 제시되었으며, 음악교육의 목적은
대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그러나 음악교
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학교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는데, 실제 학교 음악수업
에 음악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공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성
격 및 목적 항에 다양한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제시하였고, 타 교과와 음
악교과의 연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의 목적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교육과정 총론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추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의 목적 및 학교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학습 활동 및 목표를 제시할 때
에는 음악성 및 음악지식의 함양 뿐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과 관련된 음악의
외부적 목적을 적극 반영하여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지도서를 통해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업방안의 다양한 예시를 첨부하여 교육
과정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 교과 및 예술 분야와의 연계 수업’등 이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3
3. 연구방법	3
4. 선행연구 고찰	4
II. 이론적 배경	7
1. 음악교육의 당위성	7
1) 인성교육 및 전인교육	8
2) 창의성	10
3) 자아실현	14
4) 사회적 기능	17
2. 교육과정 목표	18
III.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향의 변천	21
1. 성격 및 목표 향 구성체계 비교	21
2. 성격 및 목표 향 요소 분석	23
3. 1차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25
IV.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향 분석	56
1. 2015 교육과정 총론	56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57

V. 결론 및 제언 6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음악교육에 내재된 다양한 이념	7
<표 2> 차수별 교육과정 적용 시기	21
<표 3> 시기별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항 구성체계	22
<표 4> 시기별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에 나타난 요소 분석	23
<표 5> 시기별 교육과정 성격에 나타난 요소 분석	24
<표 6> 1차 교육과정 목표	26
<표 7> 1차 교육과정 영역별 중학교 목표	27
<표 8> 2차 교육과정 목표	29
<표 9> 3차 교육과정 목표	33
<표 10> 4, 5차 교육과정 목표	36
<표 11> 6차 교육과정 목표	40
<표 12> 7차 교육과정 목표	45
<표 13> 2007 개정 교육과정 목표	49
<표 14> 2009 개정 교육과정 목표	53
<표 15> 2015 개정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56
<표 16>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격	58
<표 17> 2009 일반목표와 2015 성격 비교	59
<표 18> 2015 개정 핵심역량에 반영된 음악교육의 목적	61
<표 19>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	62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로 인하여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예체능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해 이전보다 확대된 관심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학생 중심의 수업을 목표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고시됨에 따라, 주요과목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기초소양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과·수업으로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 계발 및 창의성 계발을 비롯한 음악과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사항을 일컬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6차부터 그 사항을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중 목적(성격) 및 목표는 해당 과목의 성격을 나타내며 해당 교육과정이 이루어야 할 최종 목표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될 때 많은 혼란을 주고,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음악과 교육과정은 실기기능과 이론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태도적인 면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그 목적 및 목표를 더욱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¹⁾

교육과정은 시대의 목적과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2판. 서울: 학지사. p. 174.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하는 데 기여한다”²⁾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체화 하여 음악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특성을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교과서나 학교 현장의 수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와, 장학사,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교육과정은 한 시기에 문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수-학습의 과정과 결과 까지 포괄하는 교육의 총 과정이며, 사회와 학습자, 교수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함께 내용에 공감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여섯 분야의 역량은 음악수업이 ‘학교’에서의 ‘음악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자아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의 특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교사들에게 이 시대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음악 수업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1차~2009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목적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 공시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새 교과서 제작 및 수업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교육부(2012).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12]. p. 2.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목적 및 목표를 비교 하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음악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음악교육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둘째, 시기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교과서 제작과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3. 연구방법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음악과의 목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밝힌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음악과의 목적 분석을 통해, 시기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 및 목적의 변천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교육과정 변천의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새 교과서 제작 및 수업방향을 제언한다.

4. 선행연구 고찰

교육과정 변천 및 목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성원³⁾은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향의 모의 제작”에서 음악교육의 현 사회적 위치에 대해 시사하고, 음악교육의 영역 및 역할이 재탐색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교과과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격 향을 통해 교과와 교육적 보편성과 시사점, 교육적 고유성이 고루 함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음악교육을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 ‘음악에 의한 교육’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 중 학교교과로서의 음악교육은 ‘음악에 의한 교육’이며, 나머지 두 영역은 음악교육의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소양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7 교육과정까지의 8개 교육과정의 성격 향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성격 향을 모의 제작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김보경⁴⁾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분석 :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1차부터 7차 교육과정의 목표 구성 및 특징, 목표설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목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1차~5차까지는 당 시대의 교육사조가 목표 설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6-7차 교육과정 부터는 음악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목표와는 구별되는 음악과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목표를 뜻한다. 또한 실질적 학교교육의 지표가 되는 음악교육과정 목적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는데, 음악과의 방향성과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격 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윤성원(2010).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향의 모의 제작”. 음악교육공학. Vol.11. pp. 1-24.

4) 김보경(2005).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분석 :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분석을 중심으로”. 敎員敎育. Vol.21 No.2. pp. 171-183.

강은진⁵⁾은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교육이 인간 교육 구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음악 외적·내적 요소에 치우치지 않은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교육의 당위성과 교육철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2007 교육과정까지의 우리나라 음악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질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음악교육 방향 제시를 위한 목표설정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성격’은 교과가 사회, 학문,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시대와 사회적 보편성을 담은 것이어야 하고, 목표 설정은 교과의 본질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미영⁶⁾은 “보편적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교육 사상을 토대로 음악교육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음악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상을 고찰했는데, 사회화로서의 음악교육, 인간완성으로의 음악교육, 창의적 능력 개발로서의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시대나 사회의 흐름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로써의 음악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인간의 정신과 정서 및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영향을 끼치는 음악교육 본연의 가치와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으로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는 시기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변천만을 살펴보거나, 문헌고찰을 통해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 연구는 방법을 달리하여 2015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향을 이해하기 위해 음악교육의 당위성 연구와 교육과정 비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목적 향은 교과의 당위성을 담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밝히는 것은 교육과정 성격 및 목적 연구에 매우

5) 강은진(2008).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6) 류미영(2004). 보편적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은 각 시대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점차 개선되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변천과정을 살피는 것은 현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의 당위성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대의 음악교육철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철학적 입장이 존재하는데, 문헌고찰을 통해 <표 1>⁷⁾과 같은 내재 이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음악교육에 내재된 다양한 이념

단행본 당위성	음악교육학 총론	음악교육의 기초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창의적 음악교육	音樂教育學 概說
인간교육 (인성계발)	○		○		○	○
음악능력계발	○	○	○	○	○	○
전인교육		○	○		○	○
사회소통의 도구	○		○	○	○	
문화유산 계승	○	○			○	○
생활 속 음악	○	○	○	○	○	
학습 보조수단			○			○
자아실현 (심미적 경험)	○	○	○	○	○	
심리치료	○				○	○
경제적 가치					○	
창의성 계발		○	○		○	○

7)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2판. 서울: 학지사.

권덕원 외(2015). 음악교육의 기초 3판. 파주시: 교육과학사.

임미경 외(2013).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종.

찰스 레온하드 외(2003).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용희(2016). 창의적 음악교육. 파주시: 음악세계.

이용일(1982). 音樂教育學概說. 서울: 現代樂譜出版社.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으며, 이를 네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1) 인성교육 및 전인교육

①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의 개념

최근 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열된 경쟁과 개인주의, 학교폭력과 자살률의 증가 등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에서 전인이란 지·덕·체가 고루 발달된 인간을 뜻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특성으로 6가지 역량(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 음악적 소통역량, 문화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을 제시한다. 한편 「인성교육 진흥법」(2015. 7월 시행)에서는 인성교육을 “인간의 바람직한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은 인성교육의 실현 방법 중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본다.⁸⁾ 「인성교육 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전인교육보다 큰 범위로 보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상세 내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한 사회 내에서 사람이 협동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고루 발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일치하며, 그 중 음악교육은 정의적 특성의 계발을 담당한다. 따라서 음악이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계발, 즉 성격적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8) 오현준(2016). 명작 교육학. 서울: 박문각. p. 92.

② 음악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고대 그리스의 교육에는 올바른 인간 심성의 계발을 위한 과목 중 하나로 음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도덕성의 발달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에토스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에토스’는 사람에게 도덕적 감정을 갖게 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음악에 에토스가 내재되어, 그 도덕적 힘이 인간의 성격에 직접적이면서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다.

「에토스론」을 처음 주장한 것은 Platon이다. 에토스는 리듬, 선법, 악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악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으로 구분하였다. Platon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영혼을 강하게 지배하게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면 고상한 인간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의 인간을 만든다⁹⁾」라고 말했다. 음악교육이 인성교육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악만을 들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질서에 조금만 벗어나도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엄격한 검열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악기인 키타라, 리라 등의 악기는 좋은 음악을 결정짓는 악기로 분류되어 긍정적으로 여겨졌으나, 타악기, 복잡한 음계와 잡다한 리듬 등은 나쁜 음악의 특성으로 지적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토스론에 동의하며, Aristoteles 또한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각 선법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음악이 에토스를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어떤 것은 소위 믹소리디아처럼 사람을 슬프고 엄숙하게 하며, 또 어떤 것은 완만한 곡조처럼 마음을 유약하게 하며...어떤 리듬은 좀 더 안정적인 에토스를, 어떤 것은 좀 더 감정적인 에토스를 갖고 있으며.....”¹⁰⁾

9) 민경훈 외(2013). 전계서. p. 20.

10) Donald J.Grout 외(2013).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 7판. 서울: 이앤비플러스. p. 36.

음악의 에토스가 인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Platon과 같은 입장이나 Aristoteles가 음악의 가치를 보다 넓게 인정한다. Platon에게 음악은 정치를 위한 도구적 수단이었으므로 좋은 음악의 기능만 인정했으나, Aristoteles는 음악의 오락적 기능이나, 정신건강 및 휴식을 위한 유희적 기능까지도 인정한다. 음악을 통해 감정을 환기시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Platon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두려움, 분노 등이 담긴 음악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감정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Platon과 Aristoteles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을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음악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보다는 음악의 외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19세기에 주지주의와 과학만능주의의 폐해를 자각하여 예술운동이 일어난 것, 현재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로 인하여 예체능 교과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예체능 과목의 시수를 고정시키고, 1인 1악기, 교내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을 계발시키고, 학교폭력이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개인주의성향 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음악을 즐기므로써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기악합주나 합창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협동하는 인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창의성

①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은 음악교육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동시에,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Guilford는 창의성을 이미 알고 있거나 기억된 지식 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확산적 사고’로 정의하며,

Torrance는 “더 깊이 파는 것, 두 번 보는 것, 냄새를 듣는 것, 태양에 플러그를 꽂는 것” 등으로 유추하여 표현했다.¹¹⁾ Osborn은 과학자가 예술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롭게 독특하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고차원적 정신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자들은 창의성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창의성이 예술적, 심미적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나 경영에도 적용되며 강조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1957년 미국보다 열등하다고 인식되었던 구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발사시킨 사건에서 그들이 성공한 원인이 바로 ‘창의성’ 때문이며, 운동경기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팀의 승리를 우승으로 이끌어내는 것 또한 ‘창의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¹²⁾ 창의성의 영역은 매우 폭넓고 불분명하여, 한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Cropley는 교육과 심리적 측면이 강조된 창의성의 논의에서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찾아 설명한다. 첫 번째는 참신성으로, 창의적 산출이나 행동 및 사고과정이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효과성으로, 심미적·예술적 목표 뿐 아니라 이윤을 얻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윤리성으로, 이는 창의성이 부정적 측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¹³⁾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2009 교육과정 이후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창의적 인재는 자신의 창의성을 길러 개인의 발전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효과적인 새로운 산출을 해 낼 수 있는 사람”¹⁴⁾을 말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토론과 글쓰기 등의 탐

11) 이병승 외(2011). 쉽게 풀어 쓴 교육학 2판. 서울: 학지사. p. 169.

12) Arthur J. Cropley(2004). 창의성계발과 교육. 서울: 학지사. p. 22.

13) Arthur J. Cropley(2004). 전개서. pp. 23-24.

14) 이광우(2012).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KICE 연구리포트

구 학습과 문제해결학습, 협동학습으로의 교수학습 방법 전환의 실행이 요구된다.

② 음악교육에서의 창의성

위와 같이 정의되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바르게 수용하고, 고유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¹⁵⁾ 창의성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현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하는 창의적 인재의 핵심적 특성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롭고’, ‘가치있는’ 어떤 것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음악의 본질적인 속성과 통하고 있다. 이는 음악교육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창의성 계발의 실현가능성을 소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 연구 보고서¹⁶⁾에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있어 외국 학교의 교육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논했다. 대표적 사례는 미국 헨리포드 예술 중등학교의 디자인적 사고, 호주 갯 고등학교의 예술 교육 사례 등인데,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으로 부터의 탈피’이다. 하나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과정에 이르는 프로젝트나 토론식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사고를 확장시키며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음악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동일하다. 예로부터 철저한 이론중심의 수업은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수업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에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수업 내용과 방법, 평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는데, 이는 소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

2011. 보고서번호 PIM 2012-2. p. ii.

15) 이병승 외(2011). 쉽게 풀어 쓴 교육학 2판. 서울: 학지사. p. 169. 재인용.

16) 이광우(2012).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KICE 연구리포트. 보고서번호 PIM 2012-2.

시킬 수 있다.

음악교과는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창의적 특성을 지닌다. 다양한 음악작품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창의적 산출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훌륭한 음악작품을 경험할 때, 창의적 잠재력이 눈뜨며,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점차 확장된다. 권덕원 외¹⁷⁾는 창의적인 작품을 듣고 연주하는 것 보다 더 창의적인 활동을 찾기는 힘들고, 다양한 소리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만큼 창조적 학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cheliga(1988)는 함부르크 레퍼반 주변 클럽의 재즈음악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즉흥성과 아이디어 창안능력 및 도전의식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재즈 음악가들이 개성, 비형식성, 감정표현,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중요시 하는 특성 때문이었다.¹⁸⁾ 이 실험은 음악의 속성 그대로의 모습이 창의성 발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교과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년 간 내용의 연계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은 학습주제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고 본연의 속성 그대로의 특성을 살려 학습할 때 창의성 발휘에 효과적이기에,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 계발에 앞장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수업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과 교실제 또는 블록타임제, 동아리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간적, 환경적 제약을 제거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17) 권덕원 외(2015). 전계서. p. 52.

18) Arthur J. Cropley(2004). 상계서. p. 33.

3) 자아실현

① 자아실현의 개념

어느 교과를 막론하고 현대 교육에서는 자아실현을 최상의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자아실현이란 인간의 발달 중에서 최상의 미적 실현단계를 의미하며, 인간이 음악을 통해 지향하고 실현해야 하는 최상의 목표는 음악미적 경험이다.¹⁹⁾

자아실현의 개념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Rogers와 Maslow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Rogers는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다.²⁰⁾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학생이 잠재력을 개발 하여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가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Maslow는 그의 동기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다섯가지로 위계화 하여 설명하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보호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그의 이론에서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는 최상위의 욕구에 위치한다. 이는 성장욕구라고도 하며 지식이해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화되어지고, 이 세 가지의 욕구 중에서도 자아실현 욕구는 최상위의 욕구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아실현 욕구는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며, 최상위의 욕구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이론에 따르면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학생들의 음악 잠재능력의 계발과 심미적 경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19) 함희주(1995). “학교음악교육 목적으로서의 자아실현 이론의 적용”. 연세음악연구. 3권. p. 2.

20) 이지현 외(2009). 교육학의 이해 2판. 서울: 학지사. p. 234.

② 음악잠재력 개발

지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일원론적이어서,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능이 높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Gardner는 인간의 지적능력이 서로 독립적이고 상이한 여러 개의 상징체계로 구성된다는 다중지능이론²¹⁾을 제안하였고, 한 영역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지능이 높다고 예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²⁾. 종래의 지능이론은 특히 언어, 논리, 수학 지능을 강조하고 그 외의 지능은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Gardner의 이론에서는 8개영역의 지능 각각을 중요한 상징체계로 다루면서 개별화 수업과 재능교육의 필요성을 말한다. 각 사람에 따라 어느 영역이 더 발달되었는가하는 지능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 지능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각각 실시해야 하고, 가락, 리듬, 소리 등 음악적 상징체계와 관련된 능력을 의미하는 음악지능도 학교교육을 통해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지능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악 지능은 여러 지능 중 가장 조기에 발현되고 발달되는 지능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음악지능을 개발시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³⁾ 또한 다중지능은 각기 다른 지능을 소유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폭넓은 교수 학습 방법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음악적 방식으로부터 다른 지능의 방식을 포괄하는 교수법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고, 실음 중심의 수업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 Gardner가 제시한 8가지의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개인 간 지능, 개인 내 지능, 자연지능이다.

22) 권덕원 외(2015). 전계서. p. 230.

23) 김용희(2016). 전계서. p. 20.

③ 심미적 음악체험

이민향²⁴⁾은 심미적 음악체험이란 음향의 감득과 음악적 사고, 음악미적 통찰의 과정을 통해 음악의 총체적 표현성을 향유하는 것, 즉 음악을 듣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²⁵⁾는 심미적 경험은 실용적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그저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것, 혹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심미적 경험을 통해 인간은 최상의 만족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다.

심미적 철학의 대표자인 Reimer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심미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 이해에 수반되는 감성적 능력 뿐 아니라, 음악을 이루는 형식적 구성과 표현요소를 지각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음악의 표현형식을 이해하고 반응함으로써, 음악의 미적 속성과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은 치료, 인격함양 등의 실용적인 결과와 분리된 그 자체로서의 고유성을 갖으며, 감정을 수반한다. 또한 주의집중을 요하며, 미적대상과 주체사이의 직접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 Maslow도 음악적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음악수업은 실행적 수업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음악경험 전,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경험의 정도나 사회적 배경 등 개인적 특성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음악을 제공해야 하고,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론과 실음 중심의 수업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4) 이민향(1996). "심미적 음악체험을 위한 수업모형 구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 연구. 15호. pp. 231-273.

25) 김용희(2016). 전개서. p. 17.

26) 함희주(1995). "학교음악교육 목적으로서의 자아실현 이론의 적용". 연세음악연구. 3권. p. 6. 재인용.

4) 사회적 기능

① 생활 속 음악

초기 인류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은 고대의 동굴 벽화의 춤이나 의식을 묘사하는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된 일반적인 음악의 기원은 노동기원설, 의식기원설, 신호기원설, 감정기원설으로 음악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제사음악으로 음악이 사용되었고, 특히 인간의 삶과 종교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중세에는 음악이 예배음악의 기능을 수행했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는 시대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현대에서도 굳이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 음악의 다양한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드라마·영화의 배경음악이나 매장 광고음악 등 여가를 즐기는 시간동안 듣게 되는 음악부터,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벨소리 까지 음악의 역할은 실로 아주 다양하다. 이는 음악이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여 무언가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도구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줌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음악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다.²⁷⁾ 이와 더불어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한다.

② 문화유산 계승

교과서 내의 다양한 음악작품들은 이전 시대의 여러 예술가들의 산물이

27) 권덕원 외(2015). 전계서. p. 53.

다. 마찬가지로 현재 작곡되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과, 대중음악 또한 이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는 것은 음악을 이해하는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보다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음악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는 음악문화유산을 향유하게 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유산을 다시 창출해 내는 음악향유 층과 음악생산자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마다의 음악과 역할이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은 시대와 국가마다의 음악적 특수성과 상대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의 고유성을 인식함으로써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여, 함께 어우러져 협동하며 삶을 살게 하는데도 기여한다.

2. 교육과정 목표

1) 교육과정 및 목표 향의 개념

교육과정(curriculum)은 ‘경주로’를 의미하는 ‘currere’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교육과정이 학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 34조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지도방법과 평가방법 및 기본

지침이 포함되어있으며, 각 세부항목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 목표는 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을 포함하므로, 목표에 따라 내용의 선정 및 계획, 지도방법, 평가 기준이 설정된다. 전반적인 교수 학습 내용 및 계획 설정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²⁸⁾

2)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향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변천됨에 따라 목표 진술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음악과의 목표는 ‘목표’, ‘학년목표’, ‘성격’ 등의 항목을 통해 설명되었다. 1차부터 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표와 학년목표로 설명되었고, 6차부터²⁹⁾는 성격 향을 통해 음악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기별로 목적과 목표를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며, 목적과 목표는 어느 정도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민경훈³⁰⁾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적, 목표향의 의미가 모호하게 사용되어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음악교과에 대한 혼돈을 낳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성격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성격 향은 목적과 유사한 의미로 가치 지향적이고, 추상적 형태의 교육의도를 담는다. 음악과의 독자적인 성질과 역할을 규명하여, 음악교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학교교육 목적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음악지도를 통해 실현될 결과로서의 상태가 진술되어야 한다. 목표 향에서는 목적 도달을 위한 구체적인 음

28) 이병승 외(2011). 전계서, p. 213.

29)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격’항목이 빠져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격’ 향이 다시 추가되었다.

30) 민경훈(2014). “학교 교육 본위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 예술교육연구. Vol. 12 No.4. pp. 225-250.

악적인 내용 및 방법, 수준 등이 진술되어야 한다. 즉 측정이 가능한 형태의 진술을 뜻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교과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하지만 시대와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주대창³¹⁾은 음악교육과정이 명확한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원해야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음악교육은 실기와 이론 및 활용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목적 및 목표가 분명하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내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³²⁾

31) 주대창(2008). “음악교육의 관점 변화와 현대 교과교육에서의 수용” 서양음악학. 제 11-1호. p. 173.

32) 민경훈 외(2013). 전계서. p. 174.

III.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향의 변천

이번 장에서는 앞서 밝힌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토대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향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1차부터 새로 공시된 2015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등의 음악 내적 목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목표는 당 시대가 반영하는 교육사조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 장에서 밝힌 음악교육의 4가지 당위성을 하위영역까지 각각 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계발’, ‘심미적 체험’, ‘문화유산 계승’, ‘생활 속 음악’의 여섯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각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격 및 목표 향 구성체계 비교

음악과의 목적 및 목표는 목표와 성격 향 등으로 제시되고, 개정 시기마다 목표의 구성체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각 교육과정의 개정 및 적용 시기는 <표 2>와 같으며, 목적 및 목표 향 구성체계의 변천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2> 차수별 교육과정 적용 시기

	적용시기		적용시기
1차	1955-1962	6차	1992-1997
2차	1963-1973	7차	1997-2007
3차	1973-1981	2007	2007-
4차	1981-1987	2009	2009-
5차	1987-1992		

<표 3> 시기별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항 구성체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2015
음악과 일반목표	○	○	○				○			
학교 급 별 음악과 목표	○			○	○	○		○	○	○
학년별 목표	○	○	○	○	○					
성격						○	○	○		○

1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공통 목표인 ‘일반목표’, ‘학교 급 별 목표’, ‘학년별 목표’를 제시한다. 2차와 3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는 학교 급간 동일한 내용이나 표현상의 차이를 보인다. 4차와 5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표’와 ‘학년별 목표’항으로 나누어지며, 교과목표는 기존의 ‘목표’와 차이가 있다. 2, 3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4가지의 목표를 바로 제시한 반면, 4차, 5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통목표를 먼저 제시한 후 학교 급 별 하위목표를 세부 항목으로 제시한다.

6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새로 신설된 ‘성격’과 ‘목표’로 구성된다. 목표는 일반목표와 학교 급 별 목표인 하위목표가 제시되며, 학년별 목표는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7차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성격’과 ‘목표’로 구성되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격과 목표 항목이 학교 급 간 동일하게 제시되어 학교 급 간 목표가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전의 형태와 같이, 일반목표와 학교 급 별 목표를 포함한 목표를 제시한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성격 항이 사라지고 ‘목표’항만 제시한다. 목표 항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성격 항목과 유사한 내

용이며, 학교 급 별 목표도 제시한다. 새로 고시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성격’과 ‘목표’항으로 구성된다. ‘성격’항에서 교과와 특성과 역할, 필요성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교과별 ‘역량’을 제시한 것이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이며, 목표는 동일하게 일반목표와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한다.

2. 성격 및 목표 항 요소 분석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은 <표 4>와 같다. 다음의 분류된 요소들은 일반목표와 학교 급 별 목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1차 교육과정의 경우 학교 급 별 목표가 내용체계를 포괄하므로 일반목표에서 나타나는 요소만 반영하였다.

<표 4> 시기별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에 나타난 요소 분석

강조 영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2015
전인 교육	정서	○	○	○	○	○	○	○	○	○	
	인격	○	○	○	○	○					
	교양	○	○	○							
	애국애족	○	○								
	전인 ³³⁾									○	○
창의성			○	○	○	○	○	○	○	○	○
자아 실현	심미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		○	○	○	○	○
	음악성		○	○	○	○	○	○	○	○	○
	음악지식 ³⁴⁾		○		○	○	○	○	○	○	○
	문화향상		○	○							○
사회적 기능	문화계승			○						○	
	생활 속 활용	○	○					○		○	○

33) ‘전인교육’항에 나타난 각 항목을 교육과정에 나타난 단어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1차~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목표항에 ‘전인’이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전인’이 언급되었으나, 이것은 성격 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표 5>에 서술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복되어 나타나는 요소도 있으나, 새로운 필요에 따라 추가 되거나 제외되는 요소도 존재한다. 또한 인성에 관련된 요소들이 2015 교육과정에 ‘전인’으로 통합되어 나타난 것처럼 애매하거나 중복되는 요소가 광범위 한 용어로 통합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당 시대의 교육 사조나 사회 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음악경험이나 지식 성취에 대한 음악내적 목표는 물론이고,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전인교육, 창의성, 자아실현,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부 요소들이 대체로 고루 제시되어 있다. 각 교육과정이 어떠한 구체적 목표 제시를 통해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드러내는지에 관해서는 시대별 교육과정의 목표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³⁵⁾

성격 향은 6차, 7차, 200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일반 목표와 유사하나 목표에 비해, 음악교과의 고유한 속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격 향이 제시된 각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여 나타내는 요소는 <표 5>와 같다.

<표 5> 시기별 교육과정 성격에 나타난 요소 분석

	6차	7차	2007	2015
전인교육	·바람직한 가치관 발달	·전인적 인간	·음악적 정서	
창의성	·창의적 욕구 충족 ·창의적 표현능력 계발	·창의성 계발	·창의성 계발	·창의적 표현 욕구 충족
자아실현	·자아실현 ·심미적 안목 ·음악성 계발	·심미적 안목 ·음악적 잠재력 계발	·자아실현 ·미적경험, 즐거움 ·잠재된 음악성 계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

34) 음악지식은 대체로 ‘~를 이해한다’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목표로, 음악과 관련된 배경이해 및 음악구조와 형식 이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35) ‘3. 1차 ~2009 개정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향 분석’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능	·전통음악의 이해 및 계승, 발전 ·음악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향유	·역사적·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서 음악이해 ·음악의 생활화	·음악의 생활화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인식	·문화를 계승, 발전 ·다른 사람과 소통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인식
-----------	---	--	----------------------------------	--

3. 1차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6.25 전쟁 이후 정비된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학교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와 당대의 교육 철학 및 사조의 영향을 받으며 개정되어 왔다. 각 교육과정에 따라 강조하여 나타내는 요소가 다른데,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1) 1차 교육과정

1차 교육과정은 ‘전인교육’, ‘생활 속 음악’,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을 강조한다.

1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육과정 체계의 틀이 다져지지 않아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구성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채 상이하게 나타난다. 음악과의 목표는 일반목표와 학교 급 목표, 학년 목표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교과목의 일반적 성격 및 핵심요소를 드러내는 것은 일반목표와 중학교 목표의 상위목표이며 <표 6>과 같다. 중학교 목표의 하위 영역과 학년별 목표는 현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별 지도방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는 학교 급 목표 하위요소 및 학년별 목표가 ‘가창, 기악연주, 감상, 기초이론, 창작’ 영역의

36) 4차와 5차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인간중심’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기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두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음악교육의 목적도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 교육과정 중 두 교육과정만 같은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구분에 따라 각각 제시되기 때문이다.

<표 6> 1차 교육과정 목표

일반목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情緒)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 으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 의 정신을 기를에 있다.
중학교 목표	음악 교육의 일반 목표에 따라 가창(歌唱), 기악 연주(器樂演奏), 감상(鑑賞), 음악의 기초 이론(基礎理論), 창작(創作) 등의 습득으 로 대별한다. (이하생략)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을 강조하는 내용은 일반목표에서 제
시된다. 일반목표에서는 음악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정서’, ‘원만한 인격’,
‘교양’, ‘애국애족’의 정의적 특성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음악을 통하여
학생의 정의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은 고대 그리스 학
자들이 주장했던 에토스론과 일치하며, 이는 지·덕·체를 고루 발달시키는 전
인교육 보다는 ‘인성교육’에 가깝다. 또한 가정인, 사회인 등 학생이 속한 집
단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과 애국애족이라는 특정정서를 지목하여 나타낸
것을 볼 때, 개인적 품성을 갖추는 것 보다는 사회 안에서 함께 적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인을 기르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Platon이 이상적 국가 수립을 위해 건강한 청년 양성의 방안으로 음악을 사
용하였던 것과 같이, 음악을 사회화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중학교 목표의 하위목표와 학년목표
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되어야 할 음악영역을 ‘가창, 기악연주, 감상, 기초이
론, 창작’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데서 나타난다. 1차 교육과정의 구성체계에
는 목표 이외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곧 해당 학교 급 및 학
년에서 배워야 할 내용영역 및 성취기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차 교육과정 제정의 머리말에 보면 교육과정은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학생
의 다방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개성을 발

전시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서술되었다³⁷⁾.

중학교 목표는 이러한 의견에 부합하도록 다섯 개의 영역을 모두 제시한 것이며, 학생의 다양한 음악 잠재능력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수준이 높다는 비평을 받았는데, 이는 공통교과로서의 ‘음악’과 음악인 양성을 위한 ‘음악 전공’의 구분이 모호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³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는 내용제시 수준을 잘못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폭넓은 음악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음악 ‘잠재력 계발’에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을 강조하는 내용은 음악 영역별 학습목표로 제시된 중학교 목표의 하위 목표에서 나타나고, 특히 가창과 기악연주 영역의 목표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표 6>에서 제시하지 않은 하위목표 중 생활 속 음악의 역할을 강조한 목표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1차 교육과정 영역별 중학교 목표

중학교 목표	
가창	마. 모든 기회에 즐겨 노래함으로써 <u>음악의 생활화</u> 를 도모한다.
기악연주	나. 모든 기회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여, <u>음악의 생활화</u> 를 도모한다.

<표 7>에서 제시한 목표는 직접적으로 ‘생활화’를 언급하여 학생이 음악을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1차 교육과정이 미국의 진보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경험중심(생활중심) 교육과정인 것에서 기인한 목표이다.³⁹⁾ 이러한 교육사조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1차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학생 생활과 교

37) 문교부(1955).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p. 2.

38) 민경훈 외(2013). 전계서. p. 190.

39) 권덕원 외(2015). 전계서. p. 142.

육 간 연계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음악과에서는 학생이 경험할 다양한 음악 활동과 정보를 제시하고 이것이 생활화 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교육목적을 강조하였다.

1차 교육과정은 구성체계 조차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점을 많이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일반목표’항은 전체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1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서 음악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악의 체험’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하였을 뿐이고, 그에 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적 특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음악을 수단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본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중학교 목표’와 ‘학년 목표’에서는 해당 학교 및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다양한 음악 지식에 대해 서술하고 학생생활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일반목표와 연계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육과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교육과정 내용 수준이 매우 높고, 너무 많은 내용을 서술하였다. 학생들이 성취하기에 부담스러운 목표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론중심의 내용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학생의 연령에서 음악에 대한 흥미와 생활 속 연계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1차 교육과정은 내용의 수준과 양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일반목표’, ‘학교 급 목표’간의 연계성이 약했다. 2차 교육과정도 1차 교육과정과 같은 ‘경험중심’ 교육 사조를 따르고 있으므로 1차 교육과정의 이러한 약점은 2차 교육과정에서 보완되었다.

2) 2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에서는 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인교육’, ‘생활 속 음

악’,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이 제시되며, ‘생활 속 음악’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

1차 교육과정과 차이점은 목표구성의 체계가 다른데서 나타나는데, 2차 교육과정은 일반목표를 네 항목으로 제시하고, 학년별 목표에서 음악영역별 구체적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목표에서 ‘전인교육’의 목적만 드러났던 반면, 2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목적을 모두 제시한다.

<표 8> 2차 교육과정 목표

2차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u>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 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 2. 가창, 기악, 창작 등의 기초적인 표현 기능과 지식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 표현과 협동미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다. 3.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어, 음악을 즐기는 심정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름으로써 <u>일상 생활</u>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4.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며,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과 태도를 길러, 이를 음악과의 모든 학습 활동과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인교육’은 1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정서’, ‘원만한 인격’, ‘교양’, ‘애국애족’ 등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한 ‘우리문화에 대한 기여와 향상’을 추가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적 특성이었음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1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이러한 정의적 특성의 학습이 ‘일상생활의 필요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목적이 강조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1차 교

육과정은 학생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한다는 교육 사조를 가졌음에도 학습 내용이나 개념의 수준면에서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남겼고, 2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중학교 해설서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이유에 대해 “교육과정으로 채택된 것이 아무리 성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알맞고, 흥미 있고, 유익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훌륭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당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교육과정이 ‘실정과 안 맞음’, ‘기초학력 부족’, ‘구체적 목표 필요’ 등의 이유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상당한 반응 율을 보였다고 한다. 40)

그러므로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목표에서 ‘인성’에 관한 목표만을 진술한 반면 2차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목표를 진술하였고, 그것이 학생 생활과 경험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1, 3, 4 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에의 활용’ 등을 언급하여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학생의 생활과 연계되도록 학습되게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음악교과에서는 ‘생활 속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생활 속 음악을 향유하게 하는 음악 지식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생활화의 목표를 구현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1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잠재력 계발’의 목적도 일반목표에 드러난다. ‘음악성’, ‘음악지식 습득’, ‘창의적 표현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가창, 기악, 창작 등의 목표를 2~4항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음악성 계발 자체로 목적성을 갖기 보다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음악을 직접 활용하거나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2차 교육과정에서는

40)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문교부. p. 2.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목적의 실현을 강조한다. 2차 교육과정의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독보력은 단순 독보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활동이 아닌 즐겁게 노래 부르는 학습활동을 통해 훈련되어야 하고, 실용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은 기능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서만 다루어져야 한다”⁴¹⁾ 라고 언급한 것 역시, 학생 생활과 교육 내용이 연계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차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이 너무 높고 양적으로 많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사조는 동일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보다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1차 교육과정과 같이 음악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성적 특성에 관해서는 학생 개인의 정서 계발 보다 사회에서 원하는 공통적인 인격적 특성을 발달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음악교육을 수단적 성격으로 이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차 교육과정에서와 달리 일반목표를 총 4항으로 제시함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적이 보다 타당하게 호소되고 있는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 자기표현과 협동미의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2항)”와 같이 음악교육의 내적목표와 외적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나타난 이유는 해설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2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작성한 교육과정 지침서에 따르면 ‘일반목표’는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달성에 필요한 학습경험은 어떤 것인지를 시사한 것”⁴²⁾이라고 정의되어있다. 2차 교육과정의 목표 항의 구성이 1차 교육과정과 다른 이유는 이러한 지침을 반영한 결과이다.

41)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p. 101.

42)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p. 14.

2차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목표항의 역할을 충실하고자 한 것이며, 음악 외적·내적 목표를 연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에 교사 또한 교육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험중심 교육사조’의 영향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 ‘생활과 음악의 연계’라는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4항목 중 3항목에서나 음악외적 목표를 ‘생활화’의 목표로 채택하여, 한 측면만을 너무 강조했다는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3) 3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계발’, ‘문화유산 계승’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이 나타난다.

3차 교육과정은 1~2차에 걸쳐 나타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부적합하다는 비판으로 개정된 것이다.⁴³⁾ 따라서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미국의 것을 받아들인 2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 반해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에 맞게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국민교육헌장(1968)에 명시되어있는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각 학교 급 별로 재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⁴⁴⁾ 국민교육헌장에 따라 설정된 교육의 기본 방침은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다. 3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는 <표 9>와 같다.

43) 민경훈 외(2013). 전계서. p. 191.

44) 문교부(197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서울. pp. 3-4.

<표 9> 3차 교육과정 목표

3차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며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 2. 음악적 감각과 기능의 발달을 도모하여, 독보, 청음, 기보 등의 능력을 길러, 모든 음악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창조적인 표현 능력과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기러,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4. 우리 나라의 음악 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이해시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음악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1항에서 나타나는데, 1~2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내는 특성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풍부한 정서’, ‘인격’, ‘교양’ 등 음악체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로서의 정서적 특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음악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음악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에 한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서술되었던 것에서 의미를 확장시켜 지·덕·체를 고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으로서의 목적을 서술한 것이기도 하다. 1항에서 음악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지적인 영역인 ‘음악성 및 창의성’, 인성적 특성인 ‘인격’을 제시함으로써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을 드러내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인 2차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에 기여하는 음악학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악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던 반면 해당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 사조의 영향으로 일상음악에 대한 언급을 제외한 것이다.

‘창의성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 또한 1항에서 나타나는데 ‘창조성 계발’이라는 직접적 언급을 통해 드러난다. 1~2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별 하위목표에서도 창작활동에 관해서는 창의성 계발의 측면을 찾아볼 수 있으나 ‘창의성 계발’의 목표가 직접 일반목표에서 제시되는 것은 3차 교육과정이

처음이며, 3항에서도 ‘창조적 표현능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1~3항에 걸쳐 나타난다. 음악지식 학습 및 음악성 계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잠재력 계발의 목적은 1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제시 수준이 변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의 3항에서는 ‘독보, 청음, 기보’ 등의 능력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에 핵심이 되는 지식의 학습을 강조하며, 탐구와 발견학습을 강조한다. 3차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도 이를 위해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학습을 강조하고, 지적 탐구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⁴⁵⁾.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구조란 전이력이 높은 지식으로, 어떤 교과에 핵심 원리를 가르쳐 해당 교과에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적 개념을 말한다. 3차 교육과정에서는 ‘독보, 청음, 기보’ 능력을 모든 음악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능력으로 여긴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 안과 밖의 음악활동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 것이다.

‘문화유산 계승’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4항에서 나타난다. 이는 1~2차 교육과정에 없었던 것으로, 국민교육헌장 공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민교육헌장 공포에 따라 설정된 교육방침 중 ‘국민적 자질의 함양’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족 주체의식을 갖게 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 창조 및 계승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⁴⁶⁾. 4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목표를 나타낸 것이며, 그 결과 3차 교육과정부터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년별 목표에서는 가급적 우리나라의 음악을 부르고 감상할 것을 권고하였다⁴⁷⁾.

45) 문교부(1973). 전개서. p. 2.

46) 문교부(197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서울. p. 1.

47) 상계서. p. 78, 83.

이전의 교육과정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의적 특성이나 생활화 측면에 편중된 목적을 제시한데 비해, 3차 교육과정은 민족의식의 고취, 지식·기술교육의 쇄신 등 사회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음악성’, ‘창의성’등 다양한 특성을 제시하였고, 국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 목표 항의 내용 중복 현상이 감소하게 되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한 결과 학생이 학습하게 되는 음악의 소재 및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학생이 어느 음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의 학습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다시 조절된 교육과정이 학생 수준에 적합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데, 3차 교육과정의 해설서에 “교육과정의 내용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학생의 정서를 순화시켜 바람직한 인성을 꾀하고 우리 음악문화 향상을 위해 최저 이 정도까지는 이수시켜야 한다”⁴⁸⁾는 주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만나게 되는 음악까지도 스스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는 최종 목적은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음악교육 목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 개인 삶의 윤택과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달 차원에서 제시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올바른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활동을 포괄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내용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48) 문교부(197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서울. p. 140.

4) 4차, 5차 교육과정

4차와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계발’,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표가 나타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인 3차 교육과정은 학습내용의 양이 부적절하게 많고 기초적인 학습 및 정의적 영역의 학습이 소홀하게 여겨진다는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4차 교육과정은 인간중심 교육 사조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5차 교육과정은 4차 교육과정 개정 후 6년 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 개정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된 것이므로⁴⁹⁾ 4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 사조를 받아들이며, 목표항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4차, 5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목표 구성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모든 학교 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목표를 먼저 제시한 후, 학교 급별 목표를 하위목표로 제시한다. 4, 5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표 10>과 같다.

<표 10> 4, 5차 교육과정 목표

4차 목표	<p>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p> <p>1)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적인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듣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2) 악곡을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p> <p>3)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른다.</p>
5차 목표	<p>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p> <p>1)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며, 협동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2)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심미적인 태도를 기른다.</p>

49) 권덕원 외(2015). 전게서. p. 145.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4차, 5차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시된 일반목표에서 나타난다. 3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음악성’, ‘창조성’, ‘풍부한 정서’, ‘조화로운 인격’을 언급한 것은 유사하나,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이 제외되었다. 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영향으로 국민의 자질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1~2차 교육과정에서는 ‘애국애족’에 관한 목표가 서술되어있었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부터 이러한 목표가 배제 되었는데, 이는 음악을 통해 애국정신을 기르거나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목표가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닌 부수적인 목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⁵⁰⁾. 4차, 5차 교육과정은 음악활동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고유한 인성적 특성만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사회인으로서의 ‘전인’이 아닌 학생 개인으로서의 ‘전인’적 특성 계발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근거는 5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해설서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설서에서는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수단적인 역할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순화된 정서와 정조감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는 것”⁵¹⁾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중심 교육 사조의 영향이기도 하다.

‘창의성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3차 교육과정과 같이 ‘창조성’과 ‘표현 능력’에 대한 언급을 통해 나타나며, 일반목표와 하위목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4차 교육과정의 3개 하위목표와 5차 교육과정의 2개 하위목표에서 나타난다. 두 교육과정의 하위목표 항목의 개수는 다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같거나 유사하다. 다만 5차 교육과정에서는 4차 교육에서 제시했던 ‘독보 능력’이 제외된 것이 차이점인데, 이는 4차와 5차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4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

50) 교육부(1994).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 33.

51) 문교부(1988).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 80.

는 미국의 포괄적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다. 포괄적 음악교육은 모든 음악에 적용 가능한 음악의 기본 개념을 강조하는 교육관점이다. 따라서 4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영역을 기본능력, 표현능력, 감상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목표 영역에서 기본능력에 해당하는 독보와 청음능력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편 5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는 4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분류가 너무 세분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어 영역을 보다 간결하게 제시하게 되었고⁵²⁾ 그에 따라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의 두 영역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표현영역의 목표를 포함한 1항과 감상영역의 목표를 포함한 2항 두 개의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4차 교육과정 목표의 3항과 5차 교육과정 목표의 2항에서 나타난다. 두 항목의 서두는 같게 서술되나, 4차에서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라고 언급하였고, 5차에서는 ‘심미적 태도’로 언급한 것이 차이점이다. ‘음악을 즐기는 태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음악지식을 습득하여 생활 속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인데, 이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한다는 점과 음악이 사회적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는 음악을 통한 심미적 체험인데, 여기서의 즐거움은 실용적 목적이 있는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 음악과는 성격이 다르고 학생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2차 교육과정에서 음악을 통해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심미적 체험보다는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의 음악을 깨닫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에 더 가깝다. 경험중심 교육사조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통한’ 교육 목적이 강조되었으며, 음악지식의 습득을 통해 일상을 꾸밀

52) 권덕원 외(2015). 전게서. pp. 144-145.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4차와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음악지식의 습득 및 음악성 발달과 구분지어 서술하였으며, 특히 5차 교육과정에서 ‘심미적 태도’를 직접 언급하였기 때문에 심미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긴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심미적 체험은 Maslow의 욕구 위계 중 자아실현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미적 체험을 통해 자아실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 교육사조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이 사회 전체적인 요구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4~5차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중심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생의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음악교과에서는 음악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계발할 수 있는 정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음악과 생활의 연계 측면에서도 단순히 음악을 생활 속에서 소통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 체험’까지 목표를 확장시켜 학생의 음악성 및 음악지식의 습득이 학생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3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교육헌장의 영향으로 제시했던 문화유산 계승의 목표는 4~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은 우리 전통음악의 다양한 장르가 새롭게 제시되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도 전통음악의 영역을 충분히 다뤄야 할 것을 언급하는 등 내용적 측면에서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해당 교육과정은 ‘인간중심 교육사조’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하나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교사는 교육과정 목적 뿐 아니라 내용전반을 이해하여 수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5) 6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계발’, ‘심미적 체험’, ‘문화유산 계승’,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표가 모두 나타난다.

6차 교육과정부터 이후의 교육과정은 특정한 교육 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6차 교육과정은 다가올 21세기에 적합한 인간상으로 ‘건강한 사람’, ‘도덕적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지목하고, 이러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네 가지의 인간상은 5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목표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4차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녀 평등사상의 반영, 교육의 지방분권화 등 시대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다시 개정한 것이 6차 교육과정이다. 목표 항의 구성체계도 변화하였는데, 기존의 목표 항과 함께 성격 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제시했다는 점이다. 성격 항은 교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로 음악 교육의 철학적 근거와 궁극적 목표 및 방향을 담고 있다⁵³⁾. 따라서 목표 항에서는 간략한 교과목표만 제시하며, 학년목표 항은 사라진다. 6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는 <표 11>과 같다.

<표 11> 6차 교육과정 목표

6차 성격	음악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음을 통하여 표현 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전달받기도 한다. 음에 기초한 이러한 예술적 활동을 통해 인간은 창의적 욕구 를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음악 예술을 통한 자아 실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	---

53) 교육부(1992).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 93.

	<p>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의 주목표는 학생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그들의 타고난 <u>음악적 능력</u>을 최대한 발달시켜, 음악을 통한 <u>자아 실현</u>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발된 <u>풍부한 음악성</u>은 학생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음악에 대한 <u>심미적 안목</u>과 <u>창조적 표현 능력</u>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음악 능력을 지닌 사람은 결국 한 나라의 음악 문화 창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 <p>중학교 음악과는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 주며, 다양한 음악 작품을 감상하게 하여,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과이다. 특히, <u>우리 전통 음악</u>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이를 <u>계승, 발전</u>시키려는 태도의 함양에 기여하는 교과이다.</p> <p>학습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 표현, 감상 등의 학습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으며, 악기로 연주하는 등 <u>표현 활동</u>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6차 목표	<p>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르며, <u>풍부한 정서</u>를 함양하게 한다.</p> <p>가. 음악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와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p> <p>나.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르게 한다.</p> <p>다. 음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p>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음악성’, ‘풍부한 정서’를 통해 나타난다. 이는 인성적 특성이 아닌 ‘음악성 개발’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통해 발달 가능한 특성 중 ‘애국 애족’과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제외하였는데,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조화로운 인격’에 대한 언급까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성’과 ‘풍부한 정서’만 남게 된다. 음악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특히 5차, 6차 교육과정 당시에는 목적 및 목표 향을 통하여 음악교육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계승이나 애국애족 뿐 아니라 ‘조화로운 인격의 함양’ 또한 단순히 음악교육만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전반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목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음악 고유의 학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 정서’에 대한 측면만 제시한 것이다⁵⁴⁾. 그러므로 ‘지·정·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의 목표 달성도는 전체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창의성 계발’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목적이므로 꾸준히 강조되며, 특히 ‘창의적인 인간’이 인간상으로 제시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는 목적이다. 이전과 달리 ‘창조성’이라는 직접적 언급을 통해 제시되지는 않고, 성격과 목표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창의적 표현 능력의 계발’, ‘창의적 욕구의 실현’으로 언급된다. 음악이 인간의 창작품을 매개로 하는 예술이며, 음악교육은 창의적인 것을 듣고 배우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욕구와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음악활동은 음악교육의 ‘창의성 계발’의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향 중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목표의 ‘가’, ‘나’ 향에서 학습되어야 할 음악 능력을 제시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분류는 이해,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가’향은 이해영역을 나타내는 목표이고, ‘나’ 향은 표현과 감상영역을 나타내는 목표이다.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향 중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나타나며, 목표의 ‘다’향과도 관련이 있다. 음악활동에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학생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즐길 때 가능한 것으로 학생의 ‘심미적 체험’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학생이 심미적 안목을 갖고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생활 속

54) 교육부(1994).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 43.

에서 음악을 향유하고 즐기게 된다.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항목을 통해 나타난다.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목표 ‘다’항의 내용에도 해당하며, 특히 성격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음악의 본질적 속성이 언급된 데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목적이다. 성격 항에서는 음악을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음악이 사람 사이의 감정을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이나 현재 감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으며, 우리 생활 곳곳에 위치한 음악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활 속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문화유산 계승’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단지 음악교육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고 여겨 4차와 5차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목표이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우리 전통음악의 이해’와 ‘우리 문화의 계승 및 발전’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계승의 목적을 다시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일을 대비하는 민족 주체적 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추가된 것이다.⁵⁵⁾

6차 교육과정부터는 특정한 교육 사조를 추구하지 않으며, 해당 교육과정부터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한 6가지의 당위성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1~6차 교육과정까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음악의 본질적 속성과 음악교육을 통해 이를 수 있는 본질적 목적을 서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6차 교육과정은 성격 항목을 통해 음악의 속성과 음악교과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였다. 여섯 가지 당위성은 ‘성격’항에 제시되었고 ‘목표’에서는 음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서술하는데, 6차 교육과정의

55) 교육부(1994).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 28.

제한점은 ‘음악의 가치나 배경에 대한 이해’ 부분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6차 교육과정부터는 특히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격 향에서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심미적 체험’은 눈으로 보여 지지 않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지식 및 활동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음악 지식’이란 음악 이론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배경 및 가치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성, 음악 지식 및 음악에 대한 이해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음악의 가치나 배경에 대한 이해’의 목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추가되었다.

6)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발달’, ‘심미적 체험’, ‘문화유산 계승’,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이 나타난다.

7차 교육과정도 5~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며, 다섯 가지의 추구하는 인간상⁵⁶⁾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수준별 수업 및 교육내용의 양적 적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10

56)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시민의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년)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2년)을 도입한 것이 이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에 해당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과정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년간 학습하게 될 교육내용의 수준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 항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학교 급 목표가 사라지고 공통 교육과정 10년간의 목표가 동일하게 제시된다는 점이다. 동일한 공통목표를 제시한 후 내용영역에서 각 학교 급에 맞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나타내었다. 7차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는 <표 12>와 같다.

<표 12> 7차 교육과정 목표

7차 성격	<p>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p>음악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p> <p>더불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초등학교 생략)</p> <p>중학교 음악과는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생략)</p>
7차 목표	<p>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p> <p>가.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p> <p>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p>

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항목에 나타난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적 체험이나 활동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서적 특성만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과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정서’, ‘바람직한 인격’, ‘음악성’ 등 전인교육을 이루는 하위영역의 특성들을 나열하여 서술하였으나, 이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 5~6차 교육과정의 인간상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제시하였다. 전인적 인간 육성의 목적은 음악교육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7차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조되는 목적인 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및 학생의 특성, 요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음악 교과는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인적 인간육성의 목적을 가장 중심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⁵⁷⁾.

‘잠재력 계발’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항목에서 나타난다. Gardner는 모든 사람이 8가지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음악지능도 9가지 지능에 포함된다. 이는 모든 학생이 음악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차 교육과정 이전의 목적에서는 ‘음악적 능력’ 또는 ‘음악성’의 발달을 이야기하거나 중학교에서 학생이 배우게 될 다양한 음악지식 및 능력을 언급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음악성 및 음악지식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 항에서도 ‘음악성’이 언급되며, 하위 목표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인 이해와 활동(기

57)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2판. 서울: 학지사. p. 194.

악, 가창, 창작, 감상)에 대한 목표가 ‘가’, ‘나’ 항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던 ‘음악 잠재력’을 성격 항을 통해 나타내었는데, 모든 학생이 잠재된 음악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각기 다른 음악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음악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또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성 계발’과 ‘문화유산 계승’,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창의성 계발’의 목적은 성격과 목표 항에 나타나며, ‘문화유산 계승’과 ‘심미적 체험’의 목적은 성격 항에 제시되었다.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목표 항에서 나타난다. ‘다’항에서 ‘생활화 하는 태도’라고 언급되는데, 이는 음악에 ‘흥미와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것 보다 음악을 더 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음악수업의 내용을 밖의 실제 세계에서 경험과 연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⁸⁾ 성격 항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도 언급되는데, 7차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을 통한 심미적 체험과 생활 속 음악의 활용 두 측면이 모두 강조되므로, 두 측면의 목적에 모두 해당하는 언급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두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 선택권을 배려한 것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년간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수업 내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성격’항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각 수준의 음악수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고, ‘일반목표’항에서는 전체 학교 급을 통합하여 달성되어야 할 총괄

58)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체육, 음악, 미술 해설. p. 104.

목표를 제시하였다. 각 학교 급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의 정도와 깊이가 ‘성격’함을 통해 재정의 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해당 연령의 학생들에게 성취시켜야 할 음악교과의 목적 및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통해 구분되었던 음악 개념 및 내용 수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음악 외적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도 세분화하여 나타내었다. 학생들이 생활 속 음악의 작은 즐거움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심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음악과의 목적을 단계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올바른 수업 방안을 구상하기만 한다면, 음악교과의 총괄 목적을 효과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음악교과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위학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악교과 선택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7)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계발’, ‘심미적 체험’,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이 나타난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차’라고 부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연도를 표기하여 지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택 중심 및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보다 실현성 있게 개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내용과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과 유사한 특징도 보인다.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학습자 중심,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및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단위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성격도 그대로 유지하였다.⁵⁹⁾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는 <표 13>과 같다.

<표 13> 2007 개정 교육과정 목표

성격	<p><u>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사람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u></p>
성격	<p>음악 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u>음악을 생활화</u>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초 기능을 기르며,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p> <p>따라서 음악 교과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p>
목표	<p>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p><중학교></p> <p>가. 다양한 형식의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p> <p>나. 음악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악곡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감상하게 한다.</p> <p>다. 다양한 음악 개념과 기본적인 기보 체제를 이해하게 한다.</p> <p>라.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59) 교육부(2007). 중학교 음악과 해설. p. 123.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향에서 나타난다. 7차 교육과정에서처럼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전인교육’의 목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과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에 전인교육의 목적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음악교과에서는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성과 창의성, 심미적 안목을 습득함으로써 전인적 특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성격 향에서 음악의 특성을 새롭게 서술하면서 ‘전인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을 나타냈는데, 음악이 ‘느낌과 생각을 소리로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음악이 사고와 느낌이 통합되어 일어나는 음악 고유의 특성을 정의한 것이다. 음악활동은 그 자체가 지식, 느낌, 기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인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⁶⁰⁾,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교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잠재력 계발’과 ‘창의성 계발’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성격과 목표 향에서 각각 나타나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성격 향에서 음악과 음악교과의 역할 및 효과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목표부터 평가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력 계발’, ‘창의성 계발’ 뿐 아니라 이후에 설명할 ‘심미적 체험’, ‘생활 속 음악’의 목적 또한 성격과 목표 향 모두에 각각 나타나고, 이전에 비해 교육과정 전체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향과 목표의 ‘가’항에 나타난다. 성격 향에서는 6~7차 교육과정에서 ‘심미적 안목’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미적 경험’으로 언급되었다. 목표의 ‘가’ 항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악곡과 활

60) 교육부(2007). 중학교 음악과 해설. p. 132.

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심미적 체험'이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미적 체험은 미적 대상에 대한 표현 특성을 지각하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적 통찰력과 이해가 없으면 완전한 심미적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없다⁶¹⁾. 따라서 학교 음악수업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악곡과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이 미적 경험을 하는데 필요한 지적 통찰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성격 향과 목표의 '라'항에서 나타난다. 음악에 참여하거나 즐기는 '태도'에 관해서는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과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목적 모두에 해당하거나,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가'항에 심미적 체험에 대한 목표가 이미 서술되었기 때문에 '라'항은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목적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나', '다', '라'의 목표 항이 각각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의 목표라는 점에서 '다'항의 성격이 보다 확실해 진다. 이미 '생활화'에 대한 언급은 7차 교육과정의 목표 항에서 나타났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영역으로 '생활화'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는 음악시간을 통하여 학생이 음악을 애호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음악활동에 참여하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생활 속 음악'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학생이 삶의 전반을 통하여 음악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지칭 방식이 바뀌었으며, 이후 교육과정이 이전보다 짧은 기간을 두고 자주 개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의

61) 민경훈 외(2013. 전계서. p. 93.

교육과정은 특별한 교육 사조를 반영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음악교육 철학 및 다양한 음악교육 연구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교육과정에 잘 함축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쯤부터는 교육과정 개정 시 음악교육의 목적에 함축된 내용 보다 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수준과 수업 방법 측면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7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강조하는 ‘전인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업과 평가 방법을 전환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이 음악을 삶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눈에 보이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 흥미를 살리고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게 하는 추상적인 목적이 강조되므로,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사의 책임이 점차 중요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잠재력 계발’, ‘심미적 체험’, ‘생활 속 음악’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이 나타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목표 항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6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었던 ‘성격’ 항목을 다시 ‘목표’ 항목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음악과의 성격을 보다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함인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음악교과의 본질적 특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한 방안이다.⁶²⁾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나 자살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의 네 가지 인간상을 반영하였다. 2009

62) 권덕원 외(2015). 전게서. p. 154.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표 14>와 같다.

<표 14> 2009 개정 교육과정 목표

일반목표	<p>‘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u>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u>,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u>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u>이다. 음악 교과는 <u>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u>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u>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u>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u>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u>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u>전인적 인간</u>이 되는 데 기여한다.</p>
중학교 목표	<p>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나. 음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p>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서 나타나는 주요 목적을 요약하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앞선 교육과정에서 음악성 및 창의성, 심미적 안목을 발달시켜 전인교육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일반 목표에 나타나는 다양한 목표들의 최종 목적을 ‘전인교육’으로 두었다. 또 ‘창의적 인재’라는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창의적 인재는 “창의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효과적인 새로운 산출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⁶³⁾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알맞은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서로 분산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를 적절히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인데, 음악교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

63) 이광우(2012). 전계서. p. ii.

해’, ‘표현 능력 및 심미적 안목’ 등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줌으로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의 목적에는 구체적인 인성적 특성인 ‘배려하고 소통한다’는 특성과 ‘창의인재’가 함께 서술되었다. 이는 자칫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성적 특성이 융통성 있고 기발한 창의적 사고와 무관한 것처럼 보여 용어 의미상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전인교육의 한 방면으로 창의인재 육성의 목적이 제시될 수는 있으나, 인성교육을 위해 창의인재 육성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인성교육’과 ‘창의인재’는 연계성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효과적 산출을 위한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의 차원에서 요구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체 내의 개개인이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 낼 때에 서로가 가진 ‘창의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성적 특성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세부 목표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과 한 가지 차이점을 갖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목표 항목에서 ‘다양한 형식의 악곡’, ‘악곡의 내용과 구조 파악’, ‘다양한 음악개념’ 등 음악 내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과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활동’, ‘음악의 연주 기능’의 단어로 목표를 서술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 중심의 수업 보다 ‘실용 중심의 수업’과 ‘활동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악은 본래 이론중심의 수업 보다 실용중심의 수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환경적 제약이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음악교육에서도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등 전체 교육과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음악 외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활동중심 수업과 실음 중심 수업의 실행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목적 및 목표 향은 통합적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전체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주로 음악 외적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음중심 수업과 활동중심 수업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한다.

IV.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향 분석

1. 2015 교육과정 총론⁶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될 교육과정이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⁶⁵⁾.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구하는 인간상은 동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핵심 역량’은 인문·사회적 기초소양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교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표 15>와 같다.

<표 15> 2015 개정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6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65) 교육부.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15. 9. 24)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여섯 가지 역량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며, 교과별 각론에서도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으로 다시 제시된다.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사항에서 음악과목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술·체육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활동중심의 수업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격과 목표를 통합하였던 것을 다시 분리하여 ‘성격’과 ‘목표’항을 각각 제시하였다. 성격과 목표항을 분리한 것은,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현 학교 및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음악교과의 특성과 당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교과의 '성격'과 '목표'항은 '핵심 역량'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총론과의 높은 연계성 상에서 교과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는 '창의성 계발', '자아실현',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이 나타나며, 성격 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전에도 제시되었던 음악 및 음악교과의 특성이 다. 두 번째 부분은 전체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음악교과의 역량으로 제시하여 음악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음악과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를 연계하여 수업할 때의 효과성을 서술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항은 <표 16>과 같다.

<표 16>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격

성격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다양한 특성을 통해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음악적 감성 역량'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은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음악적 소통 역량'은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성격	<p>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p> <p>‘음악정보처리 역량’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p> <p>‘자기관리 역량’은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다.</p>
	<p>‘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심화시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학습 경험을 확장시킨다.</p> <p>첫째, 음악과 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 영역들과의 연계는 다른 예술의 표현 수단과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음악과 다른 예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p> <p>둘째,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인문·사회·자연과학적인 특성들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키고,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p>

성격 항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음악 및 음악교과의 정의와 특성을 밝힌다. 이 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한 <표 17>에서 볼 수 있듯,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일부에 설명을 덧붙여 제시한 것이다.

<표 17> 2009 일반목표와 2015 성격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p>‘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p>	<p>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p>
<p>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p>	<p>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p>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 데 기여한다.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음악 특성을 밝히면서 이것이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음악을 통한 감정표현이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부분은 ‘자아실현’⁶⁶⁾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류 문화를 계승한다는 부분은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에 해당한다. 음악 고유의 본질적 특성을 밝힘으로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드러내었다. 두 번째 단락은 교실 속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음악교과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일반목표의 첫 번째 단락과 동일한 내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속성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과’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음악교과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심미적 체험, 음악성 및 창의성 계발, 음악의 생활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창의성 계발’, ‘자아실현’, ‘생활 속 음악’으로서 음악교육 목적을 드러내었다.

성격 향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전에 없었던 항목으로 음악교과의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상과 그 인재의 구체적 특성이자 능력인 ‘핵심역량’을 제시함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세분화 되어 각각 분류된 정보를 융합하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서로 적용하고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원리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핵심역량’을 갖춘 ‘전인’이 되게

66) ‘자아실현’으로서의 목적은 ‘심미적 체험’과 ‘잠재력 계발’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포괄한 목적이다. 1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미적 체험’과 ‘잠재력 계발’을 각각 서술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모두 나타나므로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상위목적인 ‘자아실현’ 개념을 사용하였다.

함으로써, 학생이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 태도를 갖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음악교과에서 제시한 역량은 6가지이며 각각의 역량과 관련된 음악교육의 목적은 <표 18>과 같다.

<표 18> 2015 개정 핵심역량에 반영된 음악교육의 목적

핵심역량	음악교육의 목적
음악적 감성역량	심미적 체험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창의성 계발
음악적 소통 역량	사회적 기능
음악적 공동체 역량	사회적 기능
음악적 정보처리 역량	잠재력 계발
자기관리 역량	-

‘자기관리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 과정 중의 ‘자기 성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시된 역량이다.

성격 향의 세 번째 부분은 음악과 다른 예술영역,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내의 다양한 지식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교수하여, 학생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의 형태로 학습시키고자 한다⁶⁷⁾. 더 나아가 각 교과의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연계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하는데, 이는 각 교과의 특성을 뚜렷하게 알게 하는 동시에 학생의 시각과 사고의 폭을 보다 확장시켜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창출 해 낼 수 있도록 한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의 융합수업인 STEAM 교육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제안이 된 것은 몇 년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여 다시 주목해야 할 교수 방안 중 하나이다.

교육과정의 목표 항에는 ‘전인교육’, ‘창의성 계발’, ‘자아실현’, ‘사회적 기능’의 음악교육 목적이 모두 나타나며, 일반목표와 학년별 목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표 19>와 같다.

6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p. 3.

<표 19>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

일반목표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 한다.
중학교 목표	가.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일반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중 2015 개정 성격 향에 제시된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두 부분만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통해 음악적 정서 및 표현력을 계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적 정서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덧붙여 설명했다. 이는 ‘자아실현’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서술하였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재 육성’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목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창의적 인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로 특히 강조되는 인재상이므로 교과역량 부분에 제시되었으며, 타 교과와의 연계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일반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고, 중학교 목표는 가~다의 세 항목으로 각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인 표현, 감상, 생활화의 목표로

구성되었다.

새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2015 교육과정과 현재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및 목적은 모두 음악과의 당위성이 포함된 것이었다. 음악교과는 본질적으로 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끼치며, 강의식 수업이 아닌 활동중심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교과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6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강조되었던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교과에 대해 활동중심 수업 및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는 음악과의 특성이 지금까지의 학교 수업에 잘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악수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깨닫게 한다.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완벽하게 달성되는 것은 사회와 학교 및 교사의 노력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는 ‘인성교육 및 활동중심 수업’의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과 수업 소재 및 교수 방안 연구를 통해 시대 및 학생 특성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음악수업의 내용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제작 시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특히 강조하는 ‘다른 교과와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음악과의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소개되어야 한다. 이 두 측면은 기존의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학생들이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음악의 특성을 보다 쉽게 학습하도록 하며,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공통 주제를 찾아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나 자연현상 또는 문학과 관련된 음악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교과의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음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목적인 ‘인문·사회·과학적 소양 함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교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2015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과 역량’이 음악 지식이나 개념의 학습보다 ‘전인교육’과 ‘창의성 계발’, ‘심미적 체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강의식 수업 보다는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목적에 해당한다. 또한 음악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의 수준은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최대한의 참여와 흥미를 불러일으켜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활동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의 것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교과서에 담긴 모든 내용과 활동이 음악교과의 수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학교에 학생 수 만큼의 가야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음악교과서에 가야금 연주 악보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있는 경우가 그렇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예술·체육 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단지 ‘교과 수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자유학기제 등 학교 전반적 교육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은 학급 전체의 다수학생에 의해 참여될 수도 있고, 흥미와 재능을 가진 소수의 학생에 의해 참여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다양하고 흥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주장한 음악교육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다. 현 시대의 요구 반영과 문제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반영된다면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가 바로 인식될 것이며, 수업을 경험하는 학생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학생들의 정서, 창의성 계발 및 전인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과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올바르게 파악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교과의 목적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전인교육’, ‘창의성계발’, ‘자아실현’, ‘사회적 기능’의 4가지로 밝혔으며, 그것을 토대로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목적(성격) 및 목표 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교육’으로서의 목적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는데, 1, 2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육이 ‘애국애족’과 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서적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부터 음악교육의 수단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전인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어 ‘애국애족’, ‘바람직한 국민’ 등의 표현은 점차 사라지고,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음악교육의 고유의 목적인 ‘풍부한 음악성’과 ‘풍부한 정서’만 남게 된다.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총론에 걸쳐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및 전인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다시 ‘전인교육’의 목적이 나타난다. 교육과정이 변천됨에 따라 ‘전인교육’의 목적은 음악성 및 음악지식의 계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음악경험과 심미적 체험 등 음악교육에 관련한 여러 목표가 모두 고루 이루어질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창의성 계발’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음악수업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 포함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교육과정의 목표 향을 통해 직접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3차 교육과정부터이

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부터는 ‘창조성’, ‘창조적 표현능력’으로 언급되었으며, 6차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창의적인 사람’이 등장함에 따라 ‘창의성’, ‘창의적 욕구’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창조’의 개념에서, 새롭고 기발한 것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산출을 만들어 낸다는 ‘창의성’으로 개념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아실현’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잠재력 계발과 심미적 체험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잠재력 계발’의 측면은 음악지식 및 음악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에 나타나나, ‘심미적 체험’에 관한 측면은 4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으로서의 목적은 심미적 체험과 잠재력 계발의 두 측면이 모두 나타나기 시작한 4차 교육과정부터 완전히 제시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이 학교 밖의 삶 속에서 주체적으로 음악을 향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강조되는 목적이다.

넷째,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음악교육 목적은 문화유산 계승과 학생 생활 속에 존재하는 음악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유산 계승의 목적은 국민교육헌장의 영향으로 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후 음악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 대비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다시 제시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계속 나타난다. 생활 속 음악의 목적은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심미적 체험의 목적과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므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인 1, 2차 교육과정에 등장하였다가 심미적 체험의 목적이 강조됨에 따라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부터 교육 내용과 학생 삶의 연계성을 강조함에 따라 다시 등장하였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내용영역에 ‘생활화’영역이 새로 추가되어 심미적

체험과 별개의 목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변천에도 음악교육의 4가지 당위성은 모든 교육과정에 걸쳐 제시되었다. 강조점과 표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총론이 추구하는 방향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음악교육의 목적은 매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당 부분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음악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휘되지 않으며, 최근에서야 학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체능 교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학교 음악수업에 음악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학교 음악 교육에 변화를 시도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성격 및 목적 항에 다양한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제시하였고, 타 교과와 음악교과의 연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에 제시하였던 음악교과의 목적을 강조할 뿐 아니라, 각 세부목적의 통합적 달성을 통해 ‘전인’ 및 ‘창의적’인재를 육성한다는 최종 목표를 추구한다.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새롭게 제시된 부분이 많은 만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제재곡 및 음악활동이 유사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음악교육의 목적 및 학교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학습 활동 및 목표 제시 시 음악 능력의 계발 뿐 아니라 ‘창의성’, ‘소통능력’, ‘문화 이해’ 등 음악 외부적 목적의 실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사항이 수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까닭이므로 지도서를 통해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업 방안의 예시를 설명하여 교육과정 목적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고, ‘타 교과 및 예술 분야와의 연계 수업’ 등 이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

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문교부(1955).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45호.
- _____ (196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120호.
- _____ (196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_____ (197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325호.
- _____ (197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_____ (1981).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442호.
- _____ (1987). **중학교 교육과정**.
- _____ (1988).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제1992-11호. 서울: 대한교과서.
- _____ (1994).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 _____ (1997). **음악과 교육과정**. 제1997-15호 [별책12]
- _____ (1999). **중학교 체육. 음악. 미술 해설**. 서울: 대학 교과서.
- _____ (2007). **중학교 교육과정**. 제2007-79호 [별책 3]
- _____ (2007). **중학교 음악과 해설서**.
- _____ (2012).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12].
- _____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5-74호 [별책 1].
- _____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12].
- 권덕원 외(2014). **음악교육의 기초 3판**. 파주시: 교육과학사.
- 김문자 외(2002).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심설당.
-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2판**. 서울: 학지사.
- 오현준(2016). **명작 교육학**. 서울: 박문각.

- 이광우(2012).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KICE 연구리포트 2011. 보고서번호 PIM 2012-2.
- 이병승 외(2011). 쉽게 풀어 쓴 교육학 2판. 서울: 학지사.
- 이용일(1982). 音樂教育學概說. 서울: 現代樂譜出版社.
- 임미경 외(2013).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종.
- 찰스 레온하드 외(2003).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Arthur J. Cropley(2004). 창의성계발과 교육. 서울: 학지사.
- Donald J.Grout 외(2013).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 7판. 서울: 이앤비플러스.

<학술지>

- 김보경(2005).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분석 : 교육과정 개정시기를 중심으로”, 敎員敎育, Vol.21 No.2. pp.171-183.
- 김일영(2005). “중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분석” 敎員敎育, Vol.21. No.2. pp.184-197.
- 민경훈(2014). “학교 교육 본위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 예술교육연구. Vol 12 No.4. pp.225-250.
- 윤성원(2010).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향의 모의 제작”. 음악교육공학. Vol.11. pp.1-24.
- 이민향(1996). “심미적 음악체험을 위한 수업모형 구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5권 0호. pp.231-273.
- 주대창(2008). “음악교육의 관점 변화와 현대 교과교육에서의 수용”. 서양음악학. 제 11-1호. pp.173-197.

<학위논문>

강은진(2008).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류미영(2004). 보편적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www.ncic.go.kr>

교육부 <http://www.moe.go.kr>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oal and Objectives in Music Education demonstrated over the Years of the Curriculum Changes

Hye Lim L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goals and purposes of the 1st curriculum~2009 revised curriculum in music,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propose the publishment of new text book and direction of lesson.

As a result, the necessities of the goals of music education were obtained by considering reference books that were related to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The necessities of the goals of music education were found to be four purposes: 'well-rounded education,' 'development of creativity,' 'self-realization,' and 'social fun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1st curriculum ~ 2015 curriculum base on this written as

below.

First, while the purpose of 'well-rounded education' of 1st and 2nd music curriculum is suggested emotional development which society requires, essential music characters was highlighted which affects on well-rounded education after 3rd music curriculum.

Second,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creativity' was referred in the 3rd curriculum, however; according to the revision, the concept was gradually changed from 'creativity' into 'creative thinking'.

Third, as the purpose of 'self-realization' was highlighted only to the music potential development aspect in the early period, the 4th curriculum proposed a goal in relation to 'esthetic experience'.

Fourth, the purpose of 'social function' was classified into two aspects: the continu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music in students' lives. The purpose of the continu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not an original goal of music educ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continuation of cultural heritage was proposed only in the 3rd curriculum. However, the 6th curriculum was able to propose that purpose in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purpose of music in students' life was introduced in the 1st, 2nd curriculum centered on experience and proposed again in the 7th curriculum by highlighting relations between educational contents and life of students.

These 4 necessity was suggested in all curricula.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corresponds significantly with the purpose of general description in every curriculum. However, the role and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are disregarded in the educational field because the

essential purpose of music education is not reflected in music lesson of school.

The purpose of the revised 2015 education curriculum introduces a variety of core and educational abilities that aim to propose 'convergence and creativity in human development,' with the addition of the aspect that contains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other subjects. It highlights on the existing purpose and also an opportunity which will lead various music activity newly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and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since the new direction is purposed with strong connection of outline of education curriculum.

Therefore realization plan must be suggested actively including the external purpose related with total curriculum when study activity and objective of textbook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Teacher's guide book make teachers understand correctly about curriculum through various example about specific education methods in order to fulfill each education purpose. And the detailed explanation such as 'other subject and related lessons with the field of arts' which was not highlighted in the curriculum before, is needed to be attached.